

## 여성범죄자와 일반 여성의 분노특성 비교연구 - 남편 살해 여성과 기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

김 시 업†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학대 남편살해여성들 43명과 일반기혼여성 56명이었다. 이들의 분노특성은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 남편살해여성들은 일반여성에 비해 더 낮은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을 보였다. (2)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통제경향성은 일반여성과 차이가 없었다. (3) 남편살해여성들의 집단내 비교에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차이가 없었으며, 분노통제 경향성은 다른 분노 하위 척도보다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주요어 : 남편살해여성범죄자, 분노, 특성분노, 분노표현

---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시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94-6  
E-mail : mind@kyonggi.ac.kr

우리는 흔히 우발적인 살인 범죄나 특히 여성들이 애인이나 그리고 아내가 남편 또는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 ‘오죽 화가 났으면...’이라는 판단을 한다. 즉, ‘화’나 ‘분노’라는 감정과 살인 범죄 행위와의 관계성을 매우 밀접하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판단이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사건에서 남편으로부터 여러 해 동안 성적,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내들이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동안 당연히 격심한 분노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참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편살해라는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게 된다. 본 연구는 피해대여성들의 남편살해범의 범행과 관계된 것이라고 상정되는 분노라는 감정의 경험과 표현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살해여성들의 범죄행위와 분노간의 관계성의 일단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청의 범죄분석(2005)에 따르면, 1993년에 207,707명이던 여성범죄자 수는 2004년에는 400,714명으로 증가하였다. 그간의 증감을 보면 1997년, 2000년, 2001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청의 범죄분석(2005)에 따르면, 전체 여성범죄자는 400,714명이었으며, 살인, 강도, 폭행을 포함한 강력범죄는 73,917이었다. 그 중 살인범죄는 1,200건인데 이 중 여성에 의한 살인범죄가 146명이었다. 여성 살인 범죄자의 범행 이유로는 ‘우발적’인 살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불화가 2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들 중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거나 여성이 긴밀한(close) 관계를 유지해 왔던 남성 파트너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여성에 의한 살인 범죄는 남성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살인범

죄와는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여성 살인 범죄는 대부분 남편, 가족, 애인, 친구 등과 같이 상호작용이 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혼인, 혈연, 지인,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특히 여성 살인 범죄의 피해 대상은 남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예를 들면, 김상균(2001)의 연구에서는 긴밀 관계(90%) 중 남편은 45%, 김시업, 이혜선, 손지선, 전우병(2004)의 연구에서는 긴밀관계(94%) 중 남편은 44%).

여성 살인 범죄의 특성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 피해 대상이 남성들이 더 많다는 점(예를 들면, 최인섭, 전영식, 1993의 연구에서는 60%)과 남편이나 애인과 같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여성 살인 범죄의 특성들은 대부분의 남성 살인 범죄에서 보여지는 극단적이고, 우발적이고, 수단적이며, 일회적인 좌절이나 분노에 의한 것 보다는 피해자 남성에게 의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심리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여성 살인 범죄들 중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여성들의 남편살해의 범행의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예를 들면, Bowker, 1993; Leonard, 2002; Walker(1979, 1984)의 ‘때 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BWS)’ 연구;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채영주(2005) 등). 이와 같은 피해대 여성들의 남편살해범죄는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또한 매우 심각한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행의 특성이나 범행동기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기나 재산범죄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살해범죄는 Dollard 등(1939)의 “공격은 항상 좌절에 의해 발생된다”는 좌절-공격 가설이나, Berkowitz(1962)와 Buss(1966)가 공격을 수단적(instrumental) 공격과 분노적(angry) 공격으로 구분하고, 이 중 분노적 공격을 특정한 좌절에 대한 반응이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 주장이나, Geen (1998)의 “타인으로부터의 피습(attack)과 좌절을 분노의 중요 원천이다”라는 주장, 또한 Andrews와 Bonta(1998)는 “좌절은 분노를 각성 시킴으로써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소인이 되고, 분노는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며, 사람들은 분노가 강하고 과거에 분노에 의한 폭력 행동이 강화를 받았을 때 공격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견해들은 ‘좌절-공격, 좌절->분노->공격이나 폭력 행동’과 같은 틀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좌절된다고 해서 또는 분노의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공격이나 폭력행동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피학대 여성들의 남편살해범죄 대부분은 분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살해했으며(Walker, 1989), Walker(1984)의 BWS에서 보여지는 정서적 절망감과 인지적 왜곡 현상, 문제해결능력의 현저한 감소와 과도한 의존성을 보이는 학습된 무기력 증상(Browne, 1987; Walker, 1979, 1984), 극심한 공포에 따른 과도한 위협지각(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등과 같은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 Walker의 BWS는 DSM-IV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하위유형에 속하게 된 바(Walker, 1993), DSM-IV에 따르면, PTSD는 1) 사건에 대한 지속적 재경험(꿈, 환상, 환각 등을 통해,

2) 사건관련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사건에 대한 느낌과 생각의 회피, 기억상실 등), 3) 각성상태의 증가(수면의 어려움, 과민, 분노폭발, 집중어려움 등)과 같은 주요 반응을 보인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남편살해여성들이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가 공격-불안-분노-좌절감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영희 등, 2004). 이와 같은 결과들에서 피학대 여성들의 남편 살해범죄의 범행 전후의 주요 심리적 특성은 분노보다는 극도의 공포나 절망감 인지적인 왜곡 및 축소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앞서의 좌절->공격, 좌절->분노->공격과 같은 이론적 틀하에서는 남편살해범죄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학대 여성들의 남편 살해범죄의 분노 감정과 범죄행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점을 Walker(1984)가 제안한 ‘폭력의 악순환(circle of violence)’의 개념에 의하면, ‘1) 긴장수립단계(tension building phase); 남편의 사소한 구타나 언어폭력으로 인해 둘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 2) 격심한 구타 사건 단계(acute battering incident phase; 남편의 격심한 심리적, 신체적 구타가 행해지고, 아내들은 남편폭력에 절망감을 갖는다), 3) 조용하고 애정이 있는 휴지 단계(calm loving respite; 남편은 용서를 빌고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될 것을 믿으며 다시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휴지단계에서 새로운 신뢰나 애정을 형성하기 때문인데, 다시 폭력이 반복됨으로써 아내들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 함께 우울감, 낮은 자존감, 자살관념, 폭력에 대한 공포, 상해나 죽음에 대한 위협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폭력의 악순환 3단계는 피학대 여성들의 남편 살해의 주요한 심리상태로서 분노라는 감정이 개입 될 것이며, 분노 경험,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용서의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그리고 Crane(1983)은 분노를 “가벼운 초조감(irritation) 또는 짜증(annoyance)에서부터 강력한 격분(fury) 그리고 격정(rage)까지의 범위를 지닌 감정으로 구성된 정서적 상태”(p.16)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의들은 생리학적(일반적인 교감신경계적인 각성, 호르몬/신경전달물질 기능), 인지적(비합리적인 신념, 자동적 사고, 선동적인 심상), 현상학적(주관적인 인식과 분노감정이라고 명명하는 것), 행동적(얼굴 표정, 언어적, 행동적 분노 표출 전략)과 같은 변인들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Berkowitz, 1993; Deffenbacher, 1994; Eikhardt & Deffenbacher, 1995; Kassinove & Sukhodolsky, 1995). 또한 Davey, Day, 그리고 Howells(2005)는 분노를 ‘심리적 방어가 붕괴되면서 극도의 각성상태 하에 표현되는 것’으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p.627). 따라서 아직은 명쾌하게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사적인 ‘분하여 몹시성을 냄’과 같은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념적으로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각성되며 상당히 불쾌하고 화나는 주관적 감정상태’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나 논의들 중에서 살인을 포함한 폭력범죄나 분노와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자. Megargee(1963)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폭력범죄율은 낮고 극단적인 폭력은 희소하며 매우 불규칙적인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과잉통제의 성격유형(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의 소유자들은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을 극도로 억제하며 따라서 폭력을 매우 적게 행사한다. 즉 평소 때에는 분노를 행동적으로 표출하지 않지만 도저히 분노가 억제되지 않는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는 매우 극단적인 폭력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Megargee의 주장은 남편 살해범의 여성들이 평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분노를 과도하게 행동적으로 행사한 결과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gnew(1992)는 여성은 분노를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폭력 범죄율이 낮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부정적인 결과를 외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실망과 우울감 등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결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외부적인 일탈적인 반응을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여성들의 이러한 경향은 분노 표출을 자제하며, 간헐적으로 극단적인 폭력을 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살인범들은 평소 폭력을 저지르지 않다가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극단적인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Agnew의 설명은 여성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분노 표출을 하도록 사회화되지 않았기에 대신 내부적인 우울이나 실망감과 같은 스트레스로 전환되어 분노가 억제되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여성 살인의 경우는 평상시에 분노표출을 자제하고 분노감정을 억제하고 있다

가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식으로 보고 있다.

Verona와 Carbonell(2000)은 여성범죄자의 유형을 일회적 폭력범죄자, 폭력재범자, 비폭력범죄자로 분류한 바, 여성살인범죄자는 대부분 일회적 폭력범죄자이며 특히 피학대 여성에 의한 남편살해범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일회적 폭력범죄자는 적대감을 지나치게 통제하며 범죄 경력도 매우 적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회성 범죄자에 비해 폭력재범자 유형은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공격적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경향이 적으며 적대감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남편살해범을 포함한 일회적 폭력범죄자인 여성들은 평상시에 적대감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폭력범죄나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편살해범의 범죄행위를 분노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점은, 그들이 남편의 지속적인 학대에 격분하고 분노를 행동적으로 자주 표출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폭력의 위협과 행사에 비록 분노를 경험하지만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편살해범들의 평상시의 낮은 분노표출 행동은 연구자들에게 분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연구를 하도록 자극했다. 즉, 분명히 격한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하고, 행동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때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방향의 연구

는 Megargee(1966)가 폭력범죄자를 ‘과소통제형(undercontrolled)’와 ‘과잉통제형(overcontrolled)’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분노축적의 기제와 분노억제와의 관계와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연구들(Blackburn, 1971, 1993; Tice & Baumeister, 1993)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Megargee(1966)는 폭력범죄자의 성격을 ‘과소통제 공격형’과 ‘만성적인 과잉통제형’으로 분류하고, ‘과소통제 공격형’은 충동적이고 억제가 약하며, ‘만성적인 과잉통제형’은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하고 분노를 축적했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폭력행동을 하게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하면서, 폭력범죄, 분노, 그리고 억제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극단적인 폭력범죄자들 중 약간 공격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청소년 범죄자보다 더욱 통제적이고 비공격적이며, 통제와 전통성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획득한 소년들을 발견했으며, 이후 Blackburn(1971)과 Lang, Holden, Langevin, Pugh, 그리고 Wu(1987)도 과거 범죄경력이 없고 낮은 적개심(hostility)을 지닌 성인이 매우 극단적인 폭력행동을 행사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Megargee가 주장한 두 유형은 단지 평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아예 만성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분노를 억제하느냐의 여부가 분류의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Davey 등(2005)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든 상황이 충분히 분노를 경험해야 할만한 데에도 불구하고 아예 분노와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즉 분노경험이 결핍된 매우 낮은 특성분노(trait anger)와 상태분노(state anger)

의 사람들의 극단적인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노경험을 친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건 간에 분노를 외부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Blackburn (1993)은 분노경험(anger experience)과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과잉통제형을 ‘순응형(onforming type)’과 ‘억제형(inhibited type)’으로 구분하고 있다. Davey 등 (2005)은 순응형은 분노경험 자체를 못했다고 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사교적이고 동조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억제형은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고, 우울감과 낮은 자기상을 보고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위와 같은 분노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들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분노를 유발하는 특정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하는 여부와 그 강도, 분노를 표현하는 여부와 그 강도 및 양식(억제, 표출, 통제)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분노측정도구로 사용한 STAXI-K(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는 Spielberger (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검사(STAXI)의 한국판인데. 그의 STAXI는 1) 분노를 증오(hostility)와 공격의 구성개념과는 구분되는 분노에 대한 중다차원적 요소를 이해하고, 2) 특히 상태분노(state anger)와 특성분노(trait anger)를 구별하고 있으며, 3) 분노경험(anger experience)과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을 구분하는 상태-특성 성격이론에 따라 분노를 측정하고 있다.

STAXI에서 측정하는 상태분노는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수반하는 초조함(irritation)에서부

터 격노(rage)까지를 포함하는 현 상황의 현재적인 분노감정이 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특성분노는 장기간에 걸친 개인들의 상태분노의 경험과 빈도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들을 측정하고 있다. 즉, 분노적인 기질(angry temperament)과 분노적 반응(angry reaction)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STAXI에서 분노표현은 1) 분노억제(Anger-In)는 분노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성, 2) 분노표출(Anger-out)은 분노를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외부적으로 신체적 및 언어적인 공격행동을 하는 경향성, 3) 분노통제(Anger Control)는 분노감정의 발생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시의 남편 학대에 대해서 실제로 분노감정을 스스로 어느 정도 경험 및 인식하며, 그러한 분노를 어떤 양식으로 표현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대부분의 남편살해범들은 장기간의 학대를 당하면 응당 높은 분노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단지 그러한 분노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내부적으로 응축된 분노가 남편살해라는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남편살해범들은 남편의 잦은 폭력과 학대 그리고 또 다른 미래의 폭력에 대한 공포감에 의해 분노라는 감정조차 인식 및 경험하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표현도 하지 못하다가 특정 상황에서 예기되는 공포와 두려움 및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노와 폭력행동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STAXI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주장, 본 연구자의 추정에 근

거해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남편살해여성들의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현양식을 탐색하고, 이를 일반기혼 여성과 비교한다.

둘째, 남편살해여성들은 일반기혼여성에 비해 평상시의 분노경험 인식의 정도인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이 더 낮을 것이다.

셋째, 남편살해여성들은 일반기혼여성에 비해 분노억제가 더 높을 것이다.

넷째, 남편살해여성들의 상태분노, 특성분노 그리고 세 가지 분노표현양식들에 대해 집단 내 차이를 전반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연구대상자인 남편살해여성들은 김시업 등 (2004)의 “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의 연구를 실시하면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학대 남편살해여성들 43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에 별도로 STAXI-K와 범행관련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자가 직접 면접 및 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는 531명의 여성범죄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이 중 살인범죄자는 249명이며, 이들 중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여성은 133명인 바(김영희 등, 2004), 본 연구의 대상자는 133명 중 남편을 살해한 43명을 편의표집하였다.

남편살해범의 분노특성을 일반여성과 비교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K대에서

표 1. 연구대상자

연령	범죄자	일반여성
20대	3명	10명
30대	11명	15명
40대	24명	26명
50대	5명	5명
전체	43명	56명
평균연령	42.26세(7.21)	38.04세(6.67)
범위	25세 ~ 56세	27세 ~ 53세

‘심리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부모 105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문항이 포함된 질문지와 STAXI-K를 범죄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3명이 직접 방문 실시하였으며,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편살해여성의 연령대 분포에 맞추어 56명을 임의적으로 표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 측정도구

##### 분노 척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전경구, 한덕용, 이장호, 1998)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는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표준화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1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척도(분노-억제,

표 2. 상태-특성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의 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범죄자	일반인	전체
상태분노	상태분노	1,2,3,4,5,6,7,8,9,10	.822	.882	.857
특성분노	분노반응	14,15,18,19,20	.687	.740	.763
	분노기질	11,12,13,16,17	.798	.802	.818
분노표현	분노억제	23,25,26,30,33,36,37,41	.733	.755	.793
	분노표출	22,27,29,32,34,39,42,43	.923	.654	.843
	분노통제	21,24,28,31,35,38,40,44	.802	.848	.832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는 빈도로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의 Cronbach alpha값은 남편살해범의 분노-반응( $\alpha=.68$ ), 일반여성의 분노-표출( $\alpha=.65$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척도에서 .70이상을 나타냈다(표 2 참조).

#### 분노 척도의 하위척도

**상태분노(SAS).**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의 분노 감정의 경험과 연관된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동반한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도록 의 도되었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상황에 응하여 분노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빈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특성분노(TAS).** 분노기질, 분노반응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5문항씩 총 10개 문항이다. TAS는 장기간에 걸친 개인들의 상태분노의 경험과 빈도 및 다양한 상황들에서의 반응 즉, 안정적인 분노 성향을 측정한다.

**분노표현(AX).** 분노표현 척도(AX; Spielberger et al., 1986)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평가한다. AX는 최근에 다음 세 가지 척도로 유형화했다: (1) 분노억제(Anger In),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2) 분노표출(Anger Out), 물리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통해 개인 또는 객체를 향해 외부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을 평가한다; (3) 분노통제(Anger Control), 분노 감정의 발생을 성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평가한다. 각 AX 척도는 8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 자료분석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편살해여성과 일반기혼여성들의 개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분노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노의 하위척도들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와 각 집단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했다.

#### 결과

#### 남편살해여성들의 상태-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 양식

표 3은 연구대상자인 두 집단을 대상으로

STAXI-K의 하위척도들의 집단 간 그리고 각 집단 내 차이검증의 결과이다(그림 1참조).

우선적으로, 남편살해여성들의 상태분노의 평균값은 1.25로서(4점 척도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들이 현재의 수감생활에서 분노감정만큼은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분노감정은 낮아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여성들 역시 낮은 수준이며 두 집단간 차이가 없다. 원래 상태분노는 각 개인이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인식하는 분노감정이므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본 연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둘째, 특성분노는 남편살해여성들(M=1.59, SD=.37)이 일반여성(M=2.00, SD=.46)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 $t = -4.58, P = .000$ ). 이같은 결과는 남편살해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심리적 학대를 빈번하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촉발 상황에서도 분노의 인식과 자각적인 경험을 적게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한편, 남편살해여성들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력상황에서 이미 분노감정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

험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이제 분노감정보다는 폭력과 학대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더욱 압도적인 심리적 상태가 되어 버린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분노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경향성인 분노억제에서, 본 연구자의 가설과는 달리 남편살해여성들(M=1.65, SD=.35)이 일반기혼여성들(M=2.08, SD=.51)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흔히 남편살해여성들이 남편의 학대에 대한 분노감정을 참고, ‘마음속으로만 앙심을 품는다’든지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STAXI-K의 분노억제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억제하는 경향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매우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남편살해여성들의 낮은 특성분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이미 학대적인 상황에서도 분노감정을 자각하고 인식 및 경험하는 성향이 낮으므로 억제해야 될 만큼의 분노감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니면 이미 남편의 학대로 축적되어 있는 분노의 감정이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해석

<표 3> 배우자살인범, 일반여성들간 및 각 집단 내 상태-특성 분노 표현의 하위 척도 차이검증

	하위 척도	범죄자	일반인	t	df	p
상태분노	상태분노 <sup>a</sup>	1.25(.33) <sup>bcddefg</sup>	1.20(.36) <sup>bcddefg</sup>	.674	91	.502
특성분노	분노반응 <sup>b</sup>	1.68(.38) <sup>ag</sup>	2.16(.53) <sup>acdf</sup>	-4.897	91	.000
	분노기질 <sup>c</sup>	1.50(.47) <sup>ag</sup>	1.83(.55) <sup>abdeg</sup>	-3.107	92	.003
	특성분노 <sup>d</sup>	1.59(.37) <sup>ag</sup>	2.00(.46) <sup>abcfg</sup>	-4.584	91	.000
분노표현	분노억제 <sup>e</sup>	1.65(.35) <sup>ag</sup>	2.08(.51) <sup>acf</sup>	-4.552	89	.000
	분노표출 <sup>f</sup>	1.55(.55) <sup>ag</sup>	1.82(.41) <sup>abdeg</sup>	-2.635	88	.010
	분노통제 <sup>g</sup>	2.15(.50) <sup>abcddef</sup>	2.30(.54) <sup>acdf</sup>	-1.319	87	.191

<sup>abcddef</sup>는 상태-특성 분노 표현 검사의 하위척도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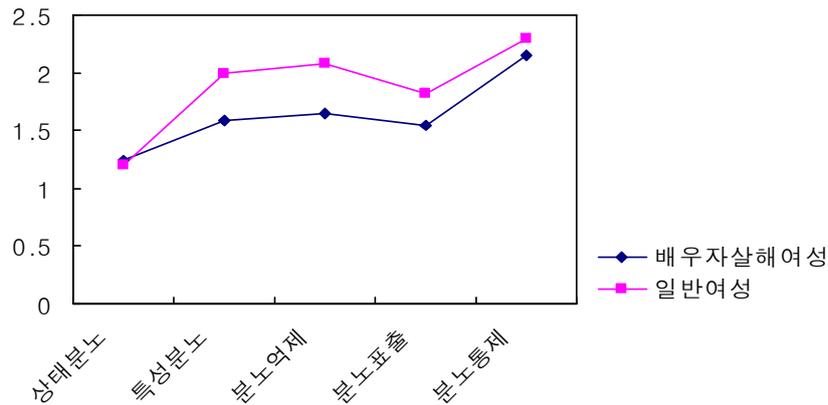


그림 1. 남편살해여성 집단과 일반여성 집단의 집단내 분노 하위척도간 차이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신체적, 언어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에게 외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표현은 본 연구자가 예상한대로 남성살해여성집단(M=1.55, SD=.55)이 일반기혼여성집단(M=1.82, SD=.41)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t = -2.635$ ,  $P = .010$ ). 이는 남편살해여성들은 평소에 피학대적 상황에서 분노지각 및 인식의 정도도 낮을 뿐 아니라 외부로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학대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다섯째, 분노상황에서 ‘화를 참는다.’, ‘인내심을 갖는다.’, ‘침착하게 자제하는 것’을 반영하는 분노감정을 적응적으로 잘 감소시키는 분노통제 경향성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의 분노통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살해여성들이 일반기혼여성에 비해서 특별히 스스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 이외의 다른 감정(예를 들어, 공포, 두려움, 절망감 등)이 더욱 중요한 심리

적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살해여성들의 집단내에서 상태-특성 분노, 분노표현 양식들간의 차이검증 결과,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STAXI-K의 각 하위척도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2)=49.384$ ,  $P=.000$ ).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를 표 3의 첨자로 표시했다. 참고로 일반인들 집단내의 결과도 표 3에 제시했다. 집단내 각 하위척도간에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F(1.55)=62.234$ ,  $P=.000$ ),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는 표 3의 첨자로 표시했다. 이들 결과들 중 남편살해여성 집단의 각 하위척도간 차이 검증의 결과들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통제 경향성을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각각 비교했을 때 분노통제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를 성공적으로 잘 참고 자제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남편살해여성들이 분노통제 경향성은 일반기혼여성들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살해여성들이 비록 분노

를 내적으로 억누르는 경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표출을 외부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평상시의 분노자극에 대해서 분노를 잘 인식하는 등의 정서경험이 낮지만, 분노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남편살해여성들의 범행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연령대의 일반기혼여성을 비교집단으로 해서 STAXI-K라는 분노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분노 하위척도들을 측정하였으며, 두 집단의 자료는 STAXI-K의 구성차원인 상태-특성분노의 정도와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식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남편살해여성들의 특성분노 점수의 평균은 4점 척도에서 1.6정도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일반 여성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성분노가 한 개인이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태분노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들이 누적되어 한 개인의 안정된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피학대 남편살해여성들의 낮은 상태분노의 경향성은 일견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평소의 일상적인 생활과 분노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노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특성분노가 낮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살인행동을 보이는 남성 살인자들에 대한 연구들(Blackburn, 1993; Davey 등, 2005; Lang 등, 1987)에서도 발

견되었다. 비록 이들의 연구가 남성 살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낮은 특성분노 유형의 소유자에 의한 살인 범죄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설명은 본 연구의 피학대 남편살해여성들의 극단적인 살인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남편살해여성범들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남편을 죽였을까?’, 심지어 ‘성격이 얼마나 포악하면 남편을 죽였을까?’와 같은 판단들이 틀렸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들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와 같은 낮은 특성분노의 경향성을 지닌 사람일 수 있으며, 또한 결혼 후 잦은 폭력과 학대 및 위협에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 또는 불안에 압도되어 낮은 특성분노의 경향성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남편살해범을 직접 심층면접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들 대부분은 매우 유순하고 내성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남편살해여성들은 일상적인 자극 또는 격분해야 될 상황에서도 일반여성들에 비해 훨씬 낮은 안정적인 특성분노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남편살해여성들이 일반여성에 비해서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식인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 중에서 분노억제의 경향성이 낮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지만, 평소 유순하고 순종적이며 분노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이 분노감정을 참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다가 어느 특정 시기에 극단적인 폭력행동이나 살인을 하는 자들이 낮은 특성분노의 사람들이며 과잉통제(over-control)나 높은 억제(high inhibited)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많은 연구들(Megagrec,

1966; Blackburn, 1971; Lang 등, 1987; Davey 등, 2005)과는 반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쟁적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연구들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통제(control)나 억제(inhibition)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STAXI-K의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의 분노억제(Anger-In)과 분노통제(Anger-Control)의 개념과 비교했을 때 혼동을 가져오는 애매함과 의미상의 중첩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의 통제(control)나 억제(inhibition)는 단순히 참고, 자제하고, 억누르는 즉, 분노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반응을 강조하는 개념이었다. 이에 비해 STAXI-K의 분노억제(Anger-In)는 분노 자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피한다’, ‘안으로 앙심을 품는다’, ‘실제로는 화가 더 나 있다’,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 통제(Anger-Control)는 ‘화를 참는다’,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냉정을 유지한다’, ‘행동을 자제한다’,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본 연구의 분노억제(Anger-In)는 실제의 분노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매우 소극적이며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노 감정의 해결에는 비효과적인 방식이다. 이에 비해 분노통제(Anger-control)는 분노감정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이다.

즉, 남편살해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에 비해 분노억제의 경향성이 낮다는 것은, 그들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분노감정을 안으로 앙심을 품는다거나, 속으로만 남을

비판한다든가,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단순히 내심으로만 억누르고 있는 식의 분노표현 경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분노억제 경향성은 남편살해여성들의 남편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분노가 폭발하여’ 남편을 살해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연성은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키는 분노통제 경향성이 보통의 수준(평균, 2.15)으로서 일반 여성(평균, 2.30)과 차이가 없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피학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행위를 분노감정과 관련지어 기술하면, 그들은 평소 분노경험이 낮은 즉 특성 분노가 낮으며, 단순히 화를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여성들과 동일한 정도로 분노감정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피학대 남편살해여성들이 분노를 과잉억제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오류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편살해여성들(평균, 1.55)은 일반여성들(평균, 1.82)에 비해 분노표출의 경향성에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연구들에서도 예측되고 지지된 결과이다(예, Davey 등). 즉, 남편살해여성들은 자신들의 분노감정을 분노촉발 당사자나 다른 대상 및 사물에게 외부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이 낮았다. 이들은 특성분노도 낮고, 분노를 심하게 억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외부로 향해 언어적, 신체적 공격으로 적절하게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낮은 분노표출의 경향성은 장기간의 지

속적인 남편의 학대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평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크게 소리를 질러 본다든가, 문을 쾅 닫아본다든가, 말다툼을 한다든가(STAXI-K의 분노 표출의 구성항목의 예)’ 하는 식으로 적절히 표출했다면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낮은 분노표출이 남편 살해의 일단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단해 볼 수 있지만, 남편살해여성들은 특성분노가 낮고, 분노를 심하게 억제하지도 않으며, 또 일반여성처럼 적절히 분노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분노표출의 경향성이 높고 낮음이 남편 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편살해여성들은 평소 적절하게 분노 표출을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김영희 등(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 공포감-불안-분노-좌절감의 차례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Walker(1984)도 여성들이 학대상황에서 받는 주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자 역시 피학대 남편살해여성들을 이해하는 데는 ‘분노감정’ 보다는 ‘공포감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희 등(2004)의 연구에서도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여성들의 분노감정을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참는다’, ‘화가 나면 분노를 삭힌다’ 등과 같은 7개의 문항으로 분노의 정도를 ‘예’는 1점, ‘아니오’는 2점을 매겨 ‘분노표현’의 점수를 측정

하여 수감 전(평균, 1.34), 수감 후(평균, 1.22)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측정문항 및 분석방식이 본 연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 비교가 어렵지만, 본 연구의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억제(4점 만점 중 평균, 1.65)와 분노표출(평균, 1.55)의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온 결과와 김영희 등(2004)의 결과는 상당히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살해여성들은 분노표출이 낮은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살해여성집단 내에서 분노 하위척도들 간의 차이검증의 결과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분노통제 경향성은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보다 더 높았으며,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간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분노통제 경향성은 앞서 논의한대로 일반 여성과 차이가 없으며, 보통 이상의 통제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남편살해여성들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특성은 분노억제, 분노표출에 비해 분노를 잘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경향성에도 차이가 없어 남편살해여성들은 Magargee(1966)가 분류한 ‘과잉통제형(over controlled)’ 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성살인범을 대상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경향성을 비교한 김상균(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는 ‘여성살인범들(80명 중 36명이 남편살해범)의 분노유형은 분노표출형 보다는 분노억제형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p. 57). 물론 본 연구는 남편살해여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분노측정치도 STAXI-K(1998)로 했다는 차이점이 있어 동등한 기준에서 상호비교하지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경향성에 관해 결론을 내리면, 그들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예단하듯이 남편의 학대에 대해서 ‘참고 참았다가 욱하는 심정에서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다’라는 추정과는 상당히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분노 상황에서 실제로 분노를 자각하고 인식하며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등의 특성 분노가 낮고, 꼭 참고 분노를 억누르는 분노 억제 경향성도 낮고, 그리고 분노를 행동적, 언어적으로 외부에 표출하는 것도 낮으며, 그런데 분노를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분노통제는 일반여성만큼 보통 이상의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곧 그들이 남편의 학대에 대한 주요 감정적 반응이 ‘분노’와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앞서도 논의했지만, 그들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보다는 ‘공포’라는 감정이 가장 우선되는 것(예, Walker, 1984; 김영희 등, 2004)이라는 주장의 적합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추정에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남편살해여성들의 집단이 매우 작고, 또한 연령대별 분포도 주로 40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표집상의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통계적 검증의 한계가 있다. 특히, 연령대별 분노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제한점 때문이었다.

둘째, 남편살해여성들이 이미 남편을 살해하고 난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받고 있는 관계로, 그들이 분노검사도구에 반응하는 것이 지나치게 회고적이고, 또한 범행을 하고 난 후 남편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교도소 수용시설의 안정감으로 인해 심리적 상태의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범행전후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전경구 등(1998)이 언급한 바와 같이, STAXI-K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나 미국판과 다르게 두 척도가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p. 32). 또한 분노억제와 분노통제의 개념과 문항내용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바, 측정 내용의 타당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인 제한점이 따르지만 남편살해여성들의 좀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본수의 확대는 피학대 여성들이 살해한 남편과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연령과 결혼기간 및 학대의 지속시간과 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필요한 요건으로 판단한다.

둘째, 남편살해여성들의 분노 관련 변인들 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매우 낮은 분노표출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포나 불안’과 같은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살해여성들이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갖는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관들이 분노경험과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예, 김기범, 임효진, 2005; Denham, 2002)이나 남편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기제(예, 김기범, 임효진, 2005)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05). 범죄분석.
- 김기범, 임효진 (2005). 용서의 심리적 과정분석: 관계, 이해, 사과와 인고가 용서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41-47.
- 김기범, 임효진 (2005). ‘사람됨’ 준거 위반과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1-21.
- 김상균 (2001).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분노특성을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4, 47-63.
- 김시업, 이혜선, 손지선, 전우병 (2004). 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11-129.
-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여성 살인범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치료적 사범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보고서.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전영실 (2004). 여성 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22, 141-167.
- 채영주 (2005).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남편살해 심리연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과잉위협지각에 따른 자기방어기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gnew, R. (1994). Why do they do it? An Examination of the Intervening Mechanisms between Social Control Variabl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3), 245-266.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ettencourt, B. A., & Miller, N. (1996).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s a Function of Provoc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3), 422-447.
- Blackburn, R.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Sons.
- Blackburn, R. (1971). Personality types among abnormal homicid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 166-178.
- Bower, L. H. (1993). *A battered woman's problems are social, not psychological*. In Gelles, R. J. & Loseke, D. R. (Eds.), *Current controversies i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Browne, A. (1987). *When battered women kill*. New York: Macmillan Press.
- Cambell, J. C. (1986). Assessment of risk of homicide for battered wome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4), 36-51.
- Campbell, J. C. (1995). Prediction of homicide of and by battered women. In J.C. Campbell (Ed.), *Assessing dangerousness: Violence by sexual*

- offenders, batterers, and child abusers*(pp. 96-113). Thousand Oaks, CA: Sage.
- Davey, L., Day, A., & Howells, K. (2005). Anger, over-control and serious violent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 624- 635.
- Deffenbacher, J. L. (1994). Anger reduction: issue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A. W. Siegman, & T. W. Smith(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pp.239-269). Hillsdale, NJ: Erlbaum.
- Denham, G. (2002). The essence of women's moral perspectives in anger expression situation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 391-397.
- Dutton, M. A. (1992). Treating battered women in the aftermath stage, Special issue: Psychotherapy in independent practice. *Current issues of clinicians.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10*, 93-98.
- Eckhardt, C., Norlander, B., & Deffenbacher, J. (2004). The assessment of anger and hostility: a critical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17-43.
- Eckhardt, C. I., & Deffenbacher, J. L. (1995). Diagnosis of anger disorders. In H. Kassinove(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27-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Anger disorders: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In H. Kassinove(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 1-27).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Lang, R., Holden, R., Langevin, R., Pugh, G., & Wu, R. (1987). Personality and Criminality in violent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179-195.
- Leomard, E. A. D. (2002). *Convicted survivors: The imprisonment of battered women who kill*.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egargee, E. (1970).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aggression. In E. Megargee, & J. Hokanson(Eds.), *The Dynamic of Aggression* (pp. 108-120). NY: Harper and Row.
- Megargee, E. (1996).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aggression.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611.
- Megargee, E. I. (1963).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Aggression. *Psychological Monographs, 3*(63), 102-104.
- Novaco, R. W. (1997). Remediating anger and aggression with violent offender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 77-88.
- Rule, B. G., & Nesdale, A. R. (1983).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 851-863.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J.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2*. Hillside, NJ: Erlbaum.
- Tice, D. M., & Baumeister, J. W. (1993). Controlling anger: Self-induced emotion change. In D. Wegner, & M. Pennebaker (Eds.), *Handbook of Mental Control* (pp. 393-409). Upper Saddle River, NJ, US: Prentice-Hall.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inger.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2), 548-573.
- Welsh, W. N., & Gorden, A. (1991).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 p.139.
- Zamble, E., & Quinsey, V. L. (1996). *The Criminal Recidivism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pp.225-227.
- 1 차원고접수: 2006. 2. 17.  
심사통과접수: 2006. 3. 17.  
최종원고접수: 2006. 3. 28.

K C I

## **The Anger-Characteristics of Spouse-killed Women Criminals and General Married Women**

**Si Up, Kim**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nger-characteristics of spouse-killed women criminals. Participants were 43 Criminals in Chung-Joo Women Prison and 56 general married women. The Anger-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y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in Korea(STAXI-K). Major findings in the study include : (1) Women criminals lower trait anger, lower anger-in, anger-out than general women. (2) The anger-control of women criminals is not different with the general women. (3) Within criminals women anger-in and anger-out is not different, and anger-control is higher than any other sub-anger scales. Finally,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for future studies are suggested.

*key words : spouse-killed women criminals, anger, trait-anger, anger-expression*